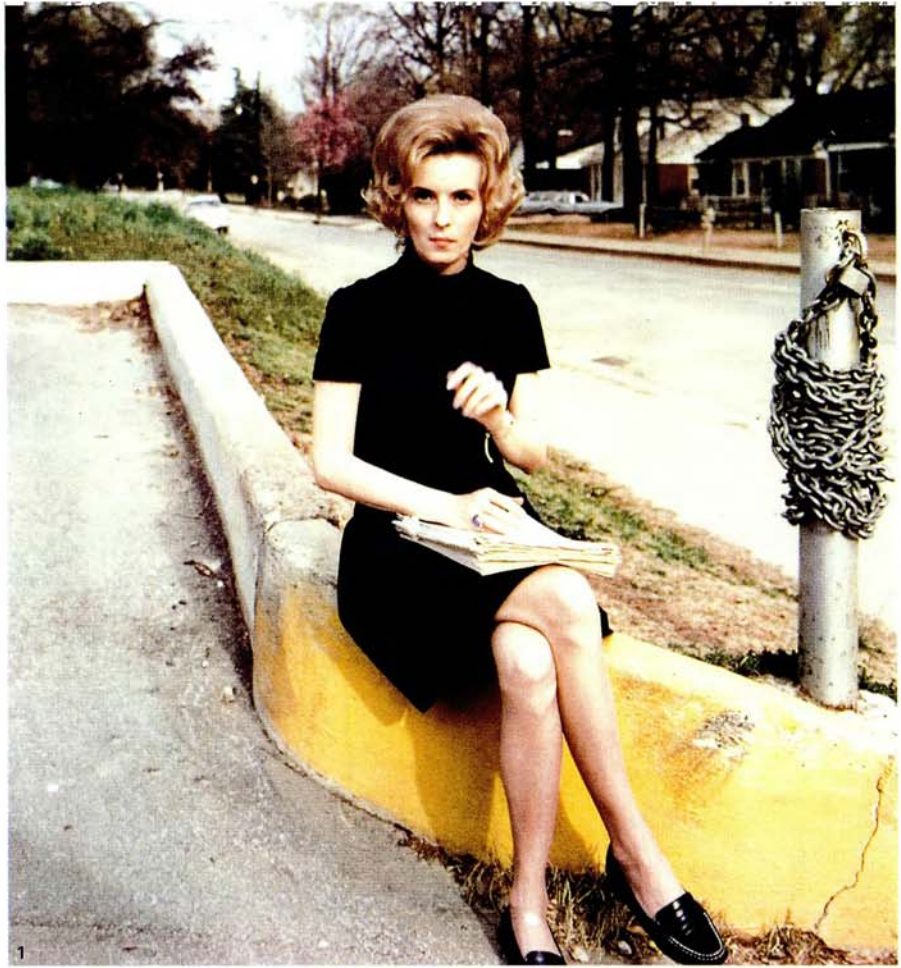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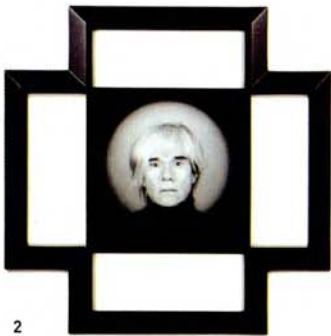


1 에바 헤세(Eva Hesse) <Untitled>, 1958, 2만 5000~3만5000달러, 2 로버트 메이플소프(Robert Mapplethorpe) <Any Warhol>, 1986, 5만~7만 달러.



1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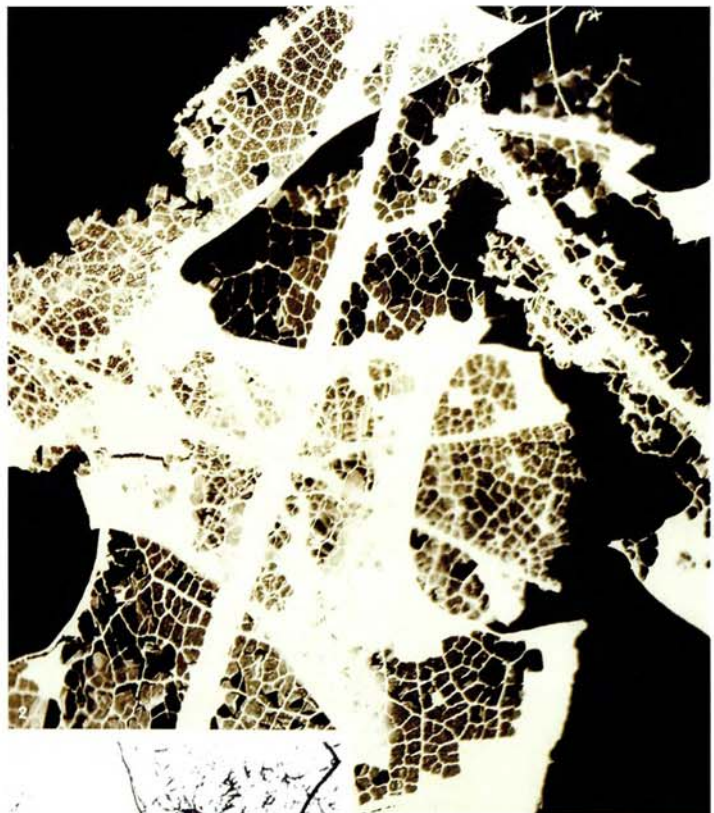
## 지적이며 대담한 현대 사진 예술 레프코 컬렉션(Refco Collection)

현대 사진에만 초점을 맞추어 기업의 예술 컬렉팅을 해온 레프코(Refco)사. 총 500여 점에 달하는 컬렉션 중 300여 점 이상을 올봄 뉴욕 크리스티 경매에서 선보였다. 사진 예술 사적으로 가치 있는 작품들이 대다수를 이루는 레프코 컬렉션에 대하여.

글 신수정(크리스티 코리아) 에디터 유소라 사진 최지영 자료 협조 크리스티 코리아(720-5414)

레프코사의 컬렉션은 레프코의 전 회장이었던 토마스 디트머(Thomas Dittmer)의 전 부인인 프랜시스 디트머(Frances Dittmer)에 의해 1975년부터 시작되었다. 이 기업의 예술 컬렉팅은 1998년부터 사진에만 특히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는데, 오늘날의 방대한 컬렉션에 이르는 데 지대한 공헌을 한 이는 레프코사를 오랫동안 담당한 큐레이터 아담 브룩스(Adam Brooks)다. 뉴욕과 시카고에 위치한 레프코사의 사무실은 컬렉션 작품들로 아름답게 꾸며졌고, 2003년에는 <주관적 실재(Subjective Realities)>라는 제목으로 도록을 출판했다. 예술성 높은 레프코사의 컬렉션 작품들은 오랜 시간 동안 레프코사 직원들의 일터에 활기를 불어넣는 데 일조했다는 사실은 기업의 컬렉션이 갖는 장점을 심분 발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올봄 뉴욕 크리스티 경매에는 총 500점이 넘는 레프코 컬렉션 중에서 약 300점 이상의 작품들을 세 차례에 걸쳐 선보였다. 4월 25일의 사진 경매(Photographs), 5월 5일의 현대 사진 경매(Contemporary Photography, Evening Sale), 그리고 5월 10일의 전후 동시대 예술 경매(Post-War and Contemporary Art, Day Sale)가 그것. 경매에 선보인 레프코 컬렉션은 현대 사진 매체의 아방가르드(Avant-garde)적 면모를 골고루 포함하고 있었는데, 이는 레프코사가 날카로운 안목으로 작품을 선별해 수집한 것임을 보여준다.



1 매튜 바니(Matthew Barney) <CREMASTER 1: Ms. Goodyear>, 1995, 12만~18만 달러. 2 에바 헤세(Eva Hesse) <Untitled>, 1958, 2만 5000~3만 5000달러. 3 윌리엄 이글스톤(William Eggleston) <Memphis>, 1986, 4만~6만 달러. 4 필립 로카 디코르시아(Philip Lorca Dicorcia) <Igor and Fish>, 1988, 2만 5000~3만 달러.

학구적인 우수함과 지적인 면모를 보여주는 컬렉션은 여타 수많은 사진 컬렉션들과 차별되어 컬렉터들의 흥미를 유발시켰다. 실제로 선견지명이 있는 세련된 안목이 돋보여 세계 유수의 사진 박물관 리스트에 올려놓아도 손색이 없을 정도. 이처럼 레프로 컬렉션은 사진 예술사적 측면에서도 높은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현대 사진 예술의 가장 대담하고 혁신적인 작품을 포함하고 있는 레프로 컬렉션은 사진의 기법에서도 다양성을 보인다. 흑백과 컬러가 공존하고, 꾸밈없는 사진과 연출된 사진이 포함되어 있으며, 크고 작은 형태들을 골고루 아우르고 있다. 컬렉션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실험성 높은 작품들이 주를 이룬다는 것. 최근작들 중 대다수가 개념 예술의 경향을 강하게 표현하고 있으며, 미학, 색채, 텍스처, 라인 및 형태에 관해서는 전통적 관점을 유지하고 있어 컬렉션이 전체적으로 균형을 잃지 않는다.

전후와 동시대 사진 예술의 역사를 보여주는 이 레프로 컬렉션에는 현대 예술 대가들의 핵심 작품들도 포함되어 있다. 안드레아 거스키(Andreas Gursky)의 <미국의 길, 뉴욕(Avenue of the America, New York)>, 신디 셔먼(Cindy Sherman)의 <무제 #381(Untitled #381)>, 존 발데사리(John Baldessari)의 <해변 장면/수녀/간호원(Beach Scene/Nuns/

Nurse)>, 매튜 바니(Matthew Barney)의 <OTTOdrone A> 등이 그 대표적 예. 이들 작품은 현대 사진 예술사의 주요 위치를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예상 가격이 보통 5000달러 이하로 책정되어 있다.

다양한 종류의 작품을 선보인 이번 경매에서는 미술 시장을 신선하게 달구고 있는 현대 예술가들의 마스터피스를 선보였다는 점과 많은 컬렉터들이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입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행사였다. ☺